

주의!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(쯔쯔가무시증)

- 전국적 조사(20개 지점)에서 쯔쯔가무시균(*Orientia tsutsugamushi*) 매개체인 털진드기 트랩지수가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
-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입기 등 예방수칙 준수 권고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10월 27일(42주차) 현재 쯔쯔가무시증(Scrub Typhus)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.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,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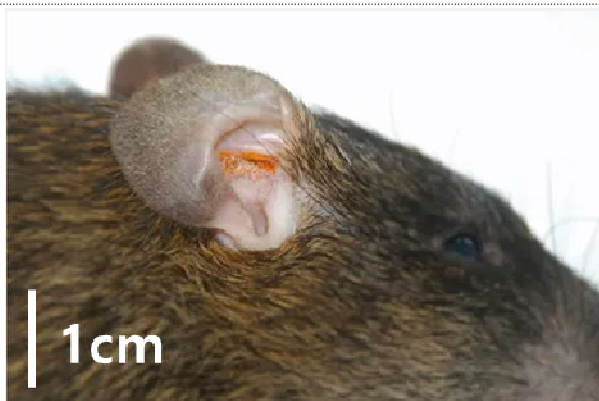
* 털진드기 트랩지수는 털진드기 채집수를 사용한 트랩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냄.

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은 8월 넷째주부터 12월 셋째주까지 전국 20개 지역*에서 수행하고 있다.

* 질병관리청 주축으로 호남권질병대응센터, 보건환경연구원(강원, 전남, 전북),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(14개)에서 감시 수행

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, 물린 자리에 가피(검은 딱지, eschar)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,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, 근육통, 반점상 발진,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.

<쯔쯔가무시균 매개 주요 털진드기>



출처: enotomolgytoday.org

쥐귀에 붙은 털진드기 유충



출처: 질병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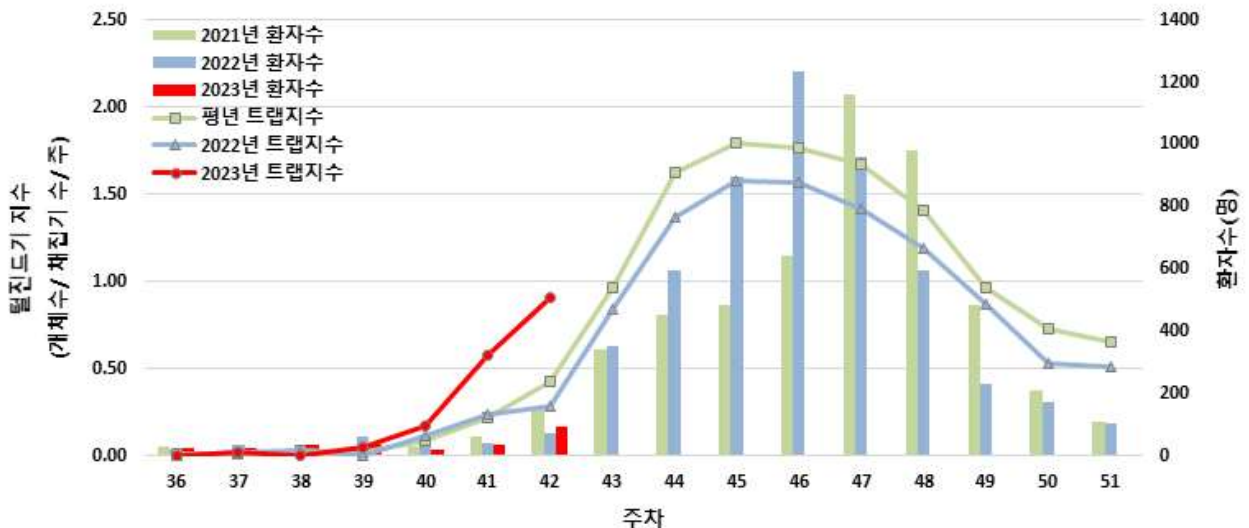
털진드기 성충

국내에 쯤쯤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*으로 알려져 있으며,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,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(붙임2 참고).

* 활순털진드기(*Leptotrombidium scutellare*), 대잎털진드기(*L. pallidum*), 수염털진드기(*L. palpalis*), 동양털진드기(*L. orientale*), 반도털진드기(*L. zetum*), 사육털진드기(*Neotrombicula japonica*), 조선방망이털진드기 (*Euschoengastia koreaensis*), 들평털진드기(*Helenicula miyagawai*)

또한 털진드기가 40주부터 42주차(9월말~10월초)에 증가하기 시작하며, 환자는 43주부터 시작하여 47주차(10월말)까지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털진드기 트랩지수와 쯤쯤가무시증 환자수(2021~2023년)



<주차별 털진드기 트랩지수*와 쯤쯤가무시증 환자수(2021~2023년)>

*트랩지수(Trap Index) =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(개체수/채집기 수)

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“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, 쯤쯤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해줄 것”을 당부하며, “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및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”을 강조하였다.

또한, “쯤쯤가무시균 감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,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(가피)이 관찰되거나, 10일 이내 발열·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쯤쯤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”고 당부하였다.

<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>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
-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* 갖추입기
 - * 밝은 색 긴소매 옷, 모자, 목수건, 양말, 장갑 등
-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

-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
-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-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

-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
-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(검은 딱지 등)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
-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

- <붙임> 1. 2023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지점
 2. 2022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
 3.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(Q&A)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희일	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관	주정원	(043-719-8521)
		담당자	연구사	김현우	(043-719-8565)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황경원	(043-719-71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홍	(043-719-7161)
		담당자	연구사	황지혜	(043-719-7167)

붙임 1

2023년 썩썩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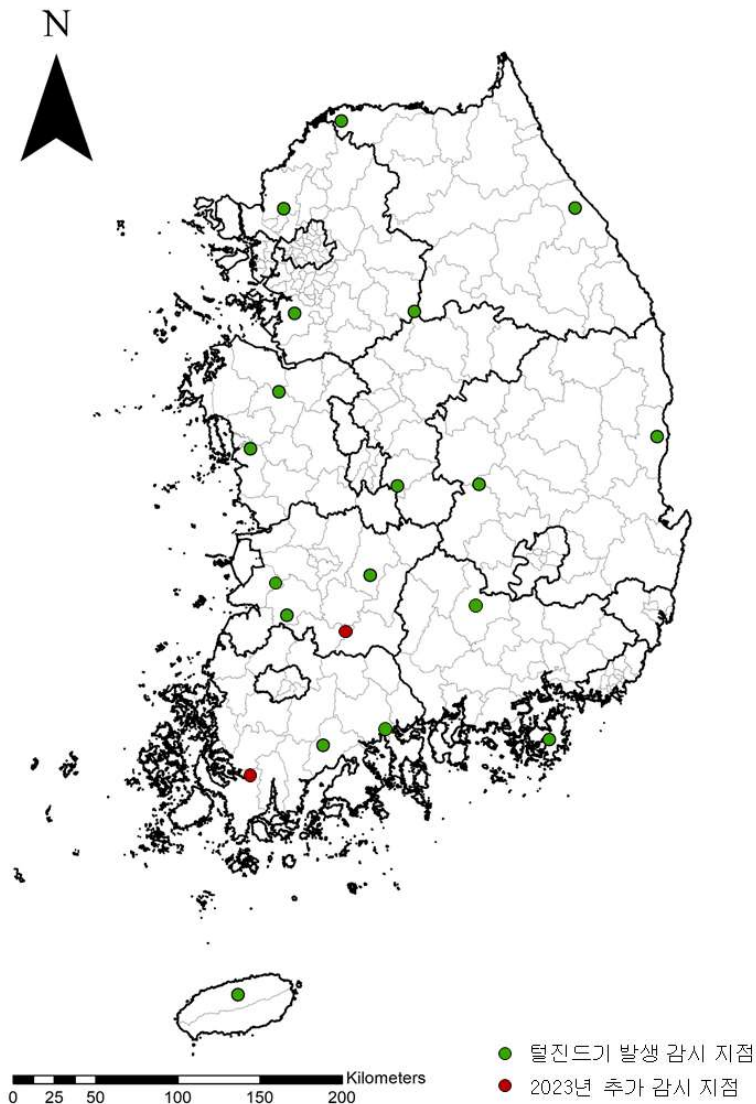
□ '23년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

○ 전국 9개 도 20개 지역(4개 환경*)에서 매주 털진드기 발생 감시 수행

구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지역	여주시 파주시 화성시	강릉시 철원군	옥천군	보령시 예산군	정읍시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**	순천시 보성군 해남군**	김천시 영덕군	거제시 합천군	제주시

* 털진드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발생 감시 수행 : 논, 밭, 수로, 초지

** 2023년부터 2개 지역을 추가하여 털진드기 발생 감시 확대 운영(호남권질병대응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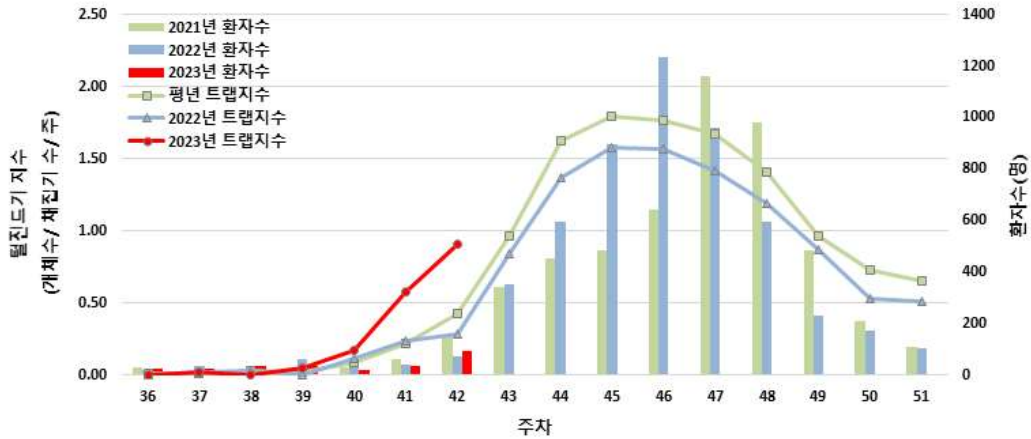


<2023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 지점>

□ 2022년 쫘쫘가무시군 매개 털진드기 주간 감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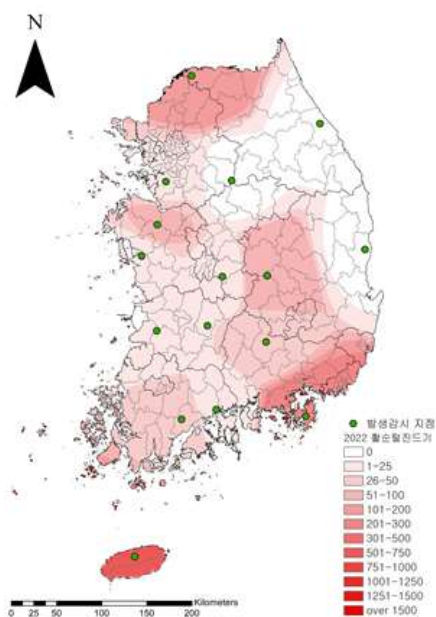
- 털진드기의 주요 활동 시기(9~12월) 동안 털진드기 발생을 감시한 결과, 10월 중순(43주차)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1월 초(45주차)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.
- 털진드기 개체수 증가 후 잠복기 1~3주를 지나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.

털진드기 트랩지수와 쫘쫘가무시군 환자수(2021~202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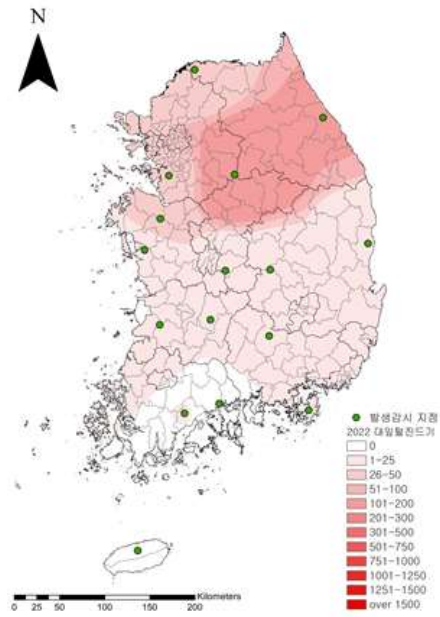


<주차별 털진드기 트랩지수*와 쫘쫘가무시군 환자수(2021~2023년)>

*트랩지수(Trap Index) =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(개체수/채집기 수)



<'22년 활순털진드기 발생 분포>



<'22년 대잎털진드기 발생 분포>

Q1. 프프가무시증의 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야외작업·활동 시 적정 작업복(긴팔·긴바지, 모자, 목수건, 토시, 장갑, 양말, 장화) 착용,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,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돛자리 사용, 야외작업·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, 귀가 즉시 목욕·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Q2. 프프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?

- 프프가무시증은 보통 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, 두통, 발열, 오한, 구토, 발진, 근육통,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.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,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Q3. 프프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?

- 프프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. 환자는 연중 발생하지만, 여름철에 산란 된 털진드기알은 본격적으로 초가을에 부화하고,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숙주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을 한다. 이에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(9~11월)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프프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

Q4. 모든 털진드기가 프프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?

-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총 59종의 털진드기가 있습니다. 이 중 현재까지 프프가무시균 매개종으로 확인된 것은 활순털진드기, 대잎털진드기, 수염털진드기, 동양털진드기, 반도털진드기, 사육털진드기, 조선방망이털진드기, 들꿩털진드기, 이렇게 8종입니다. 그 중에서도 활순털진드기, 대잎털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입니다.